

뉴스 경북·대구·울산 경북 포항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생계곤란 다문화가정 생필품 전달

작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등록일 2016년12월22일 20시08분



22일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은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5세대에 1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NERA·총장 전재원)은 22일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정과 간담회를 하고 동절기 생계곤란 5가정에 후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NERA사무국 총장, 다문화센터 관계자, 다문화가정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NERA사무국과 다문화가족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애로사항을 듣고,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품 전달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은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다문화가정 5가정에 쌀, 라면, 휴지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후원품을 전달 받은 한 결혼이민여성(베트남)은 "겨울이면 난방비 부담으로 생활비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전재원 총장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에 힘과 위로를 주고 싶었다"며 "연말연시 다문화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성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사회1,2부를 총괄하는 행정사회부 데스크 입니다. 포항시청과 포스텍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